

노래 사용의 가능성과 효과: EFL 대학생 사례연구

유도형
(국민대학교)

I. 서론

학습이란 기억 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으며 특히 언어학습은 기억에 크게 의존하고(Bilbrough, 2011), 기억을 활성화시키는 데에 음악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 언어학습과 음악의 관계를 조명할 필요가 있다. 중세시기에 음유시인들(jongleurs)이 그날의 중요한 소식들을 음악으로 바꾸어서 마을마다 돌아다니며 전했다(Grout, 1980)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도 기억과 음악의 관계는 상당히 깊은 것을 알 수 있다. Abbott(2002)에 의하면 최근에도 Glenn Gould¹⁾는 자신이 쓴 에세이들이나 기타 쪽지들을 음악에 맞추어 기억하기 좋도록 만들어 놓았다고 한다. 또한 정형화 배열(formulaic sequence)을 암기시키는 것이 외국어교육에서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음악의 사용은 적절한 것처럼 보인다(Gatbonton & Segalowitz, 1988). 이런 근거로, 현장의 외국어 교육에서 음악을 이용하려는 움직임은 상당히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래로 언어를 학습하면 훨씬 좋을 것이라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1) 캐나다의 피아니스트로서 1932년에 태어나서 1982년에 작곡하였다.

벗어나서 좀 더 실용적으로 생각했을 때, 노래로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두 가지의 부담을 갖게 될 수도 있다. 노래의 멜로디를 암기해야 하고 다음에는 가사를 암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시간도 많이 소비해야 하고 멜로디와 가사라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요소들을 동시에 암기해야 하는 부담이 있게 된다. 가사를 암기했다고 해도 그 가사 안에 학습자가 원하는 언어형태들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노래 가사는 반복되는 것이 많아서 실제로 암기할 수 있는 언어량이 적을 수가 있다. 멜로디와 가사를 암기하는 데에 시간을 많이 소비하고서 얻을 수 있는 언어량이 적으면 경제적으로 오히려 손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래의 주제도 결합이 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주제가 한정적으로 사랑에 치중될 수 있다는 점이다²⁾. 사랑과 관련된 언어내용들을 주로 암기하게 될 것이므로 언어 학습에 있어서 다양성과 실용성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가 문제이다.

따라서 음악이나 노래를 외국어교육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이론적 근거와 이 근거를 받쳐줄 자료들이 필요하다. Engh(2013)에 따르면, 많은 현장 교사들은 직관적으로 음악이 영어를 가르치는데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론적 근거가 약하여 교실에서의 노래 사용이 의외로 적다고 한다. Coe(1972), Griffiee(1989), 그리고 Salcedo(2010)도 노래를 교실에서 사용하기에는 이론적 근거가 희박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론적 근거란 어떤 언어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노래를 통한 학습이 Chomsky(1965)식의 문법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Erman과 Warren(2000), Foster(2001), Howarth(1998) 등의 주장처럼 정형화 배열에 기반을 두는지를 밝혀야 한다. 이들은 언어의 이분의 일 정도는 정형화된 요소들(formulaic elements)로 되어 있어서 언어 이론은 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전자의 언어이론을 따른다면 노래 학습은 문법구조나 문법패턴의 연습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만약 후자의 언어 이론을 기반으로 한다면 관용구(idiom), 연어(collocation), 다양한 구(phrase) 등을 암기한다는 의미이므로 장기기억이 습득을 결정하는 직접적인 효과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음악

2) Murphey(1989)는 사랑이 주제가 된 노래가 80%에 이른다고 했다.

과 기억을 연관시키려는 연구들(Fonseca-Mora, 2000; Medina, 1990; Schunk, 1999)을 보면 관용구, 연어, 다양한 구 등을 총괄하는 정형화 배열에 기반을 둔 이론들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도 이에 기반을 두고 노래를 영어 학습에 이용하는 효과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지금까지 출간된 연구논문들 중에는 많은 연구들이 노래학습과 언어습득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규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Abbott, 2002; Engh, 2013). 또한 학습의 주체인 학습자의 성향이 개인마다 다르기 마련인데 이런 점들이 고려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노래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는 가하면 반대로 싫어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노래를 좋아한다고 해도 팝송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지만 컨트리(country)송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기도 하고 팝송을 좋아해도 어떤 팝송은 좋아하지만 어떤 팝송은 싫어하는 학생들도 있다. 박자가 빠른 노래를 좋아하는 학생이 있는 가하면 박자가 느린 것을 선호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이 막연히 노래를 교실에서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래와 언어습득 그리고 성인 학습자들의 학습방법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특히 아동의 영어교육에서는 당연히 사용되는 노래가 성인 대학생의 영어 학습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노래와 언어습득의 상관관계가 분명하고 성인의 언어학습에 활용될 수 있다면 당연히 노래의 사용을 영어교육 현장에서 확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대학생 7명을 무작위로 선발하였고, 하나의 노래를 익힐 때마다 위에서 정한 기준에 맞추어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과연 노래가 어느 정도 언어학습에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고 마지막으로 교실에서 노래의 사용에 대한 제안을 논의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음악³⁾과 언어

Del Campo(1997)는 음악과 언어 사이의 관계를 통계적인 사용빈도수로 언급하여 기술하였다. 그에 따르면 언어학자들은 말로 하는 구어 대화(communicative verbal interaction)에서 언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구라고 하지만, 실제의 구어 대화에서 보면 언어의 사용은 겨우 15%만 사용된다고 한다. 전달해야 할 정보의 70%는 몸짓 언어(body language)가 사용되며 나머지 15%가 언어의 음악적인 특징(the musical character)에 의존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화에서 음악과 언어의 사용은 거의 같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Fonseca-Mora(2000)는 음악과 언어의 공통점에 대해 기술하였다. 음악과 언어는 모두 소리(sound)를 처리하는 데에서 기인하고 또한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언어가 정보전달에서 음악보다 정확한 것이 사실지만, 음악은 감정 전달에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음악과 언어는 고저(pitch), 강약(volume), 두드러짐(prominence), 강세 또는 강조⁴⁾(stress), 어조⁵⁾(tone), 리듬⁶⁾, 쉼⁷⁾(pause) 등과 같은 요소들을 본질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또한 언어와 음악을 배우기 위해서는 언어나 음악에 노출되지 않고서는 배울 수 없다는 것도 비슷하다. 그는 태아(fetus)가 자궁 속에서 소리신호(acoustic signals)를 인지하는 연구들이 있었다고 한다. 예를 들면 Hannaford(1995)의 연구결과를 보면 엄마 배속에서 5개월 된 태아가 음운(phonemes)에 반응한다고 하였고 비슷한 시기에 음악소리에도 반응을 하는 것이 발견되었다고 한다⁸⁾.

Crystal(1986)의 연구는 언어보다 음악이 먼저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
- 3) 이때의 음악이란 노래라는 뜻도 되지만 선율(melody)을 의미하기도 한다. 주지하다시피 언어의 선율은 억양을 들 수 있다.
 - 4) 강세란 소리의 크기, 높이, 그리고 길이가 결합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 5) 어조란 단어나 단어의 일부의 소리가 높고 낮은 정도이다.
 - 6) 소리의 규칙적인 패턴을 말한다.
 - 7) 발화 도중에 잠깐 중지되는 것을 말한다.
 - 8) Hannaford(1995)는 Tomatis(1991)의 연구결과를 주로 인용하였다.

그는 운율습득(prosodic acquisition)이 말 산출(speech production)보다 먼저라고 했다. 그가 기술하고 있는 운율습득 5단계에서 2번째 단계를 보면 어린이는 어른들이 그에게 말하는 것에서 운율적인 대조를 하여 의미를 짐작한다고 한다. 이 시기가 지나서 언어학적인 부상(linguistic emerging)의 조짐이 보인다고 했다. Piñero와 Feu(1996)는 선율곡선(melodic contour)에 대한 연구를 했다. 3살짜리 아이들에게서 어떤 답을 듣고자 했을 때 교사가 과장된 음조패턴(exaggerated intonation patterns)을 사용하고 있음을 목격하였다. 그리고 같은 교사가 새로운 활동을 설명하고자 했을 때 다시 같은 음조패턴을 사용하였다. 3살 된 아이들은 교사가 사용하는 언어보다 교사의 목소리가 달라진 것에서 무엇을 듣고 따라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라고 기술하였다. Fonseca-Mora(1997)는 EFL 교실에서 교사들이 선율곡선을 사용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학생들에게 새로운 영어구조를 가르치거나 또는 학생들에게 따라하라고 말할 때 또는 학생들의 발음을 고쳐 줄 때 과장된 선율곡선을 사용하였다. 교사들은 그들이 그 순간에 “노래(singing)”(2000, p. 150)하고 있는 것을 의식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과장된 선율곡선이 학생들에게 주는 입력(input)은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Fonseca-Mora(2000)는 선율곡선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EFL 교실에서 응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소개하고자 하는 영어구조나 기타 형태가 있을 때, 운율을 중점으로 활용하게 되면 발화가 음악처럼 들려서 학습을 도와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보면, 언어에는 음악적인 특징이 분명히 존재하며, 이것을 활용하여 언어를 가르치면 언어학습에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노래를 이용하여 언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다른 문제로 봐야 할 것이다. 언어 교수현장에서는 노래가 하나의 텍스트가 되는 것이므로 기존의 어떤 연구결과들이 노래를 텍스트로 인정하고 있는지를 다음 장에서 다루었다.

2. 노래와 언어발달과의 관계

노래가 ESL이나 EFL 교실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언어학습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Lake(2003)는 교실에서 노래를 사용하는 데에 Krashen(1983)의 이론을 근거로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정의적인

여과(affective filters)를 이용하여 ESL 학생들의 국가적인 장벽과 개인적인 장벽을 허물고 하나가 되었다고 Lake는 기술하고 있다. Engh(2013)도 Krashen(1983)의 정의적 여과 가설이 음악에서는 잘 맞다고 주장한다. 물론 정의적인 요인이 제 2 언어습득 이론에서 중요한 면인 것은 사실이다 (Brown, 2007). 그러나 정의적인 요인들은 구체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언어가 발달해 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론적 근거로 제시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Medina(1990)는 노래를 통한 어휘의 습득이 Krashen(1985, 1989)의 입력가설(input hypothesis)에 의해서 설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노래는 이해 가능한 입력(comprehensible input)을 위한 문맥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노래의 어휘가 언어외적인(extralinguistic) 도움을 받으면 의미가 분명해져서 새로운 어휘가 습득된다고 했다. 예를 들어 노래를 부르면서 동작을 취한다거나 그림을 보여준다거나 하면 언어외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입력가설은 직접적으로 언어의 발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니 언어습득 이론으로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입력가설의 핵심인 이해 가능한 입력을 위해 노래가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아니고 언어외적인 도움으로 가능한 것이라면 굳이 노래 그 자체가 언어발달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Engh(2013)는 노래의 효과를 5가지 측면⁹⁾에서 살펴보았는데 지면 관계상 제 2 언어습득과 관련된 부분만 기술하기로 한다. Engh는 여기서도 4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정의적인 여과, 동기(motivation), 학습전략(learning strategies), 그리고 실증적인 제 2 언어 연구(empirical SLA studies)로 나뉘어서 기술하였지만 앞의 3가지는 언어발달이나 습득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실증적인 제 2 언어 연구만 다루기로 한다. 실증적인 제 2 언어 연구도 3가지 측면에서 기술하였다. 회상과 기억(recall and memory), 무의식적인 머리에서의 반복연습(din¹⁰)/involuntary mental

9) Engh(2013, p. 114)는 사회논리적 사항(sociological considerations), 인지과학(cognitive science), 모국어습득(first language acquisition), 제 2 언어 습득(second language acquisition), 그리고 실질적 교수자료(practical pedagogical resources)의 5가지 측면을 기술하였다.

10) 'din'은 'The din in the head'에서 나온 단어이다. Cynthia Ozick(2006)가 출간한

rehearsal), 그리고 언어특정기술¹¹⁾(language specific skills)이다.

회상과 기억 측면에서, 노래는 기억을 돕기 때문에 어휘학습에 좋다고 하였다(Balch, Bowman, & Mohler, 1992). 그러나 그는 회상이나 기억이 왜 언어습득이나 발달과 관계가 있는지를 명시하지 않아서 그의 주장이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없다. 사실 기억은 언어발달과 관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언어의 중심을 정형화 배열로 보았을 때 기억은 언어발달을 가져다주는 요인이 될 수가 있다. Bolander(1989)는 정형화 배열을 암기하게 되면 자동적으로(naturally) 그 언어형태를 분석(analysis)하게 되어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문법이 배워진다고 하고 문법이 배워지고 나면 언어형태처리가 편해지면서 기억이 더욱 강화된다고 했다. Ellis(1996)는 외국어 학습에서의 성공은 암기할 수 있는 힘에 달려 있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장기기억에 들어간 언어형태들이 작은 단위(chunks)로 나누어짐으로서 후행학습을 지원하므로, 결과적으로 문법 습득을 향상시킨다고 한다. Lee(2014)도 피험자가 암기된 표현들의 내부구조(chunks)를 스스로 발견(noticing)하고 나서, 이 내부구조를 이용해서 새로운 의미 문장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발견하였다. 위에서 기술한 연구결과들은 모두 기억과 언어발달이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Engh는 이와 같은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무의식적인 머리에서의 반복연습은 멜로디 또는 선율의 효과이다. 정확하게 기술하면 멜로디에 스며들어 있는 감정(emotion)의 영향이라고 하겠다. 과거 연구에서 Bogoch(1968)는 정보(information)가 인간의 신경체계(nervous system)에 저장되기 위해서는 정의적인 부호(affective coding)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 마디로 감정은 기억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라는 뜻이다. 결국 Engh는 노래는 기억을 돕고 기억은 정형화된 언어를 암기하는데 필요한 요소라는 것을 암시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노래와 언어발달의 관계를 밝히고 있는 이론적 배경은 거의가 기억

수필집의 이름이 ‘The din in the head’이다. 그러나 언어학습과 관련해서는 Krashen(1983)의 논문에서 Elizabeth Barber 교수가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The din in the head’는 Barber교수가 제일 먼저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11) 언어특정기술은 하위항목(subchapter)으로 다룰 것이어서 여기서는 생략할 것이다.

과 관련된 것들이다. Ho, Cheung과 Chan(2003)이 90명의 남자 어린이들(6살에서 15살)을 대상으로 음악훈련을 시킨 다음 테스트를 해 보았더니 언어 학습(verbal learning)과 기억능력(retention abilities)에서 훈련을 받지 않은 어린이보다 훨씬 나왔다. 그리고 음악훈련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언어적 기억이 향상되었다고 한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그들은 음악을 하는 어린이들의 뇌에 신경해부학적 변화(neuroanatomical changes)가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한다. Chan, Ho와 Cheung(1998)이 6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정보처리 능력(processing heard information)을 조사해 보았다. 그들 중에서 어린 시절 악기를 다루어 본 적이 있는 성인들이 단어를 기억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을 확인하였다.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음악을 해 본 사람들은 좌측대뇌측두엽(left cranial temporal regions of the brain)이 일반인들보다 커져 있다고 한다. 좌측대뇌측두엽이란 청각을 담당하고 귀에 들어온 정보를 처리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노래는 기억을 돕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기억은 언어의 중심을 정형화 배열로 보았을 때 언어발달과 관계가 있다. 다만 노래를 이용한 연구들이 구체적으로 언어발달을 언급하고 있지 못하므로 타당한 후행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3. 노래의 언어영역별 영향

이번에는 노래를 사용하였을 경우, 언어의 어떤 면들을 발달시키는데 도움이 되는지 이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겠다. Murphey(1992a), Fonseca-Mora(2000) 등은 노래야말로 EFL 교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훌륭한 교수자료라고 하였다. Murphey(1992a)는 언어 학습이 지루한 작업인데 노래는 즐거운 경험을 선사하기 때문에, 노래는 동기요인(motivator)이며 개선편제(enhancer)라고 했다. Fonseca-Mora는 선율적인 접근(melodic approach)을 제안하면서 언어의 전체적인 영역(언어의 4기능, 어휘, 문법, 발음, 문화 등)에 걸쳐서 습득과정에 효과가 있다고 했다. 여기서 선율적인 접근이란 언어구조를 선율을 이용해서 가르치자고 하는 것이고 노래를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는 노래를 활용하는 것도 발음

과 기타 전체적인 언어습득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했다. Forster(2006)도 언어의 전 영역에 걸쳐서 노래가 좋다고 하였다. 그는 어린이들에게는 발음을 가르칠 수 있으며 또한 멜로디나 반복되는 언어구조 덕분에 어휘나 언어패턴을 기억하는 데에 효과가 있다고 했다. 그는 뇌가 말(speech)을 어떻게 처리하며 발화를 하는지에 대한 신경학적인 연구에 기초를 두고서 언어학적인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신경학적인 측면에서는 우반구(right hemisphere)가 노래를 처리하는 곳이므로 언어의 운율(prosody) 또한 우반구에서 처리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기술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의 발견은 이미 세상에 잘 알려져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는 계속해서 언어학적인 면, 운율학, 어휘와 문법적인 측면에서 노래의 타당성을 기술하고 있다. 운율학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영어가 강세박자(stressed timed) 언어인데 어린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 노래는 강세와 박자를 쉽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한다. 어휘에 대해서도 노래가 효과가 있다고 한다. 노래에서 나오는 어휘들을 멜로디 없이 기억하기는 어렵지만 멜로디가 주어지면 기억이 쉽게 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문법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다고 하였는데, 어린이들이 노래를 부를 때 처음에는 발음하는 법을 배우고 다음에는 개개의 단어의 의미를 배우고 나서 문법구조를 익힌다는 것이다. 이 시기에는 노래 가사가 의미하는 총체적인 뜻을 모르고 있지만 이미 노래를 부르면서 문법구조를 발화를 통해서 “사용(using)”(p. 65)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문법구조에 관한 설명을 이해할 나이가 되었을 때 교사를 통해서 문법을 완전하게 배우게 된다고 한다.

음악은 듣기 향상에도 좋다고 한다. 사실 듣기란 교육에서 대단히 중요하며, Mayesky(1986)는 듣기를 배우는 것은 중요하다고 했다. 왜냐하면 들을 수 있어야 무엇이든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Smith(1992)는 듣기가 학교 수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크다고 했다. 교사의 말, 주위의 다른 학생들 말, 또는 기타 매체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는데 대략 50%에서 75%의 시간을 듣는데 사용한다고 했다. 따라서 듣기는 가르칠 필요가 있으며 듣기만 하면 자연적으로 듣기는 향상된다는 안일한 교사들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Swanson, 1996). Flohr, Miller와 Persellin(1996)은 음악훈련을 받게 되면 듣기와 관련된 뇌의 기능이 증진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4살에서 6살 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7주 동안 매일 25분씩 음악훈련을 시키고 그들의 뇌 활동을 측정하였다. 결과는 음악훈련을 받은 어린이들의 뇌전도주파수(EEG frequencies)가 인지처리능력이 증가하면서도 오히려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Hirt-Mannheimer(1995)는 음악활동을 시켰더니 듣기능력 향상에 효과적이었다고 발표를 했다.

노래와 암기(또는 기억)가 깊은 관련이 있다(Brady, 1991; Fonseca-Mora, 2000; Stone & Brady, 1995; Engh, 2013)는 것이 확실하므로 노래를 활용한 어휘학습 관련 연구들은 쉽게 찾아 볼 수가 있다. Hazel-Obarow(2004)는 K-1(kindergarten)과 K-2(the first grade)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음악이 어휘 습득에 미치는 단기적 그리고 장기적 효과에 대해 조사를 하였다. 결과는 음악을 사용한 집단이 어휘습득에서 동기가 높아졌다고 한다. Li와 Brand(2009)는 중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래(가사와 음악)가 어휘습득¹²⁾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조사를 하였다. 그들은 대학생들을 3개의 집단으로 나누었다. 첫 집단은 노래로만 가르치고 두 번째 집단은 노래와 기타 다른 활동으로 가르치고, 마지막 집단은 노래를 생략하고 다른 활동으로만 가르쳤다. 결과는 노래를 사용한 첫 집단의 어휘습득이 제일 효과적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노래와 다른 활동을 혼합한 방법을 사용한 집단이 점수가 제일 낮게 나왔다. 그래서 Li와 Brand는 교실에서 노래의 사용이 많아야 효과가 있지 노래를 적게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효과가 감소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Coyle과 Gracia(2014)는 스페인에서 2004년부터 법적으로 EFL을 5살부터 가르치게 되어 있다고 했다. 그러나 효과에 대해선 아직 연구가 된 것이 거의 없지만 어휘습득에서는 노래가 효과가 있었다고 했다. 그들이 사용한 방법은 노래라고 하는 문맥에 새로운 단어가 노출되도록 해주었을 때 어휘에 대한 이해와 사용에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노래 외의 다른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을 때는 어휘에 대한 이해는 어려움이 없었지만

12) 실제로는 어휘 뿐 만이 아니고 어법, 그리고 의미까지 실험을 하였다. 그러나 어휘에 관련된 문헌을 기술하는 것이어서 어휘습득만을 강조하였다.

어휘를 사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노래가 언어를 사용하게 해 주었다고 한다.

Abbott(2002)는 성인학습자들을 대상으로 L2 학습을 촉진시키는 방법으로 노래를 사용하였다. 노래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수업에서 배운 언어를 쉽게 기억하게 해 주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는 노래가사(song lyrics)를 추천하였는데 이 노래들은 반복이 많기 때문에 언어를 기억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반복적인 노래를 부르다보면 언어형태, 통사구조, 어휘항목, 분절¹³⁾(segment), 초분절소¹⁴⁾(suprasegmental)에 노출이 되면서 자동적으로 L2를 배우게 된다고 한다. 노래가사들이 반복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Gatbonton과 Segalowitz(1988)는 노래가사는 정형화 배열을 배울 수 있게 해 주어 미래의 대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Murphey와 Alber(1985)는 팝송의 담화가 엄마말투(motherese)와 비슷하다고 했는데, 팝송가사가 언어적으로 단순하기 때문이다. Murphey(1992b)는 후행연구를 통해서 팝송의 가사가 반복적이며 대화체(conversationlike)이고 일반 대화의 속도보다 속도가 반으로 줄어 있다고 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실에서 팝송의 사용을 추천하고 있다.

그러나 Coyle과 Gracia(2014)의 연구에서는 어휘 학습에 있어서 노래의 한계성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그들의 연구가 미취학 아동들(preschool children, 5 years old)에 국한되기는 하였지만 성인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연구결과를 보여 주었다. 첫째는 아동들이 이해어휘(receptive vocabulary)에서는 비교적 효과를 보았지만 사용어휘(productive vocabulary)에서는 다수의 아동들이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고 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노래 가사의 일부를 빼고 아동들이 빠진 부분을 채우게 한다거나 반복되는 가사를 부르게 한다거나 또는 멜로디 없이 가사를 부르게 한다거나 하여 노래 부르기에 참여시켜서 사용어휘를 향상 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노래 사용의 한계를 보여 주는 것은 아동들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었다. 그들의 실험에 참여한 25명 중 8명(32%)은 5개의 단어로 된

13) 분절이란 발화에서 사용되는 자음이나 모음 하나하나의 소리를 말한다.

14) 초분절소란 음운적인 요소로서 강세, 억양, 고저 액센트(pitch accent) 등을 가리킨다.

가사들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표현하지도 못하였다. 이 아동들은 수업시간에 산만한 태도를 보였고 노래를 부르게 할 때는 수줍어하거나 어색해 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노래에 자신이 있는 아동은 노래 부르는 시간을 아주 좋아하는가하면 반대의 아동은 노래 부르는 시간은 줄립다고 하였다.

이런 다양한 반응들이 성인 대학생들에게도 나타날 것을 쉽게 예상할 수가 있다. 많은 연구들이 노래를 교실에서 사용하는 것을 권하고 있지만 성인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어떤 강점과 단점들이 보이는지를 조사해 보는 것도 타당한 노래 사용 방법의 연구에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Ⅲ. 연구 방법

1. 참여자들

본 연구에서는 서울 시내 대학교 학생 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남학생 3명(=B, F, G)과 여학생 4명(=A, C, D, E)이다. 이 중에서 영어를 전공(=A, D, F) 또는 부전공(=B, C)으로 하고 있는 학생들은 5명이고 나머지 2명(=E, G)은 비전공 학생들이다. 무작위로 선택한 학생들이지만 영어 실력을 알아보기 위해 각자 간단한¹⁵⁾ 해석을 시켜보았고, 해석능력을 위주로 하여 판단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 참여자 독해능력 정도

등급	참여자
상급	A
중상	B, C, D
중중	E, F
중하	G

15) 토익 리딩 문제의 지문을 이용하였다.

연구자의 판단으로는, 실험연구를 통해 발달 변화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므로 사전 평가가 필요하진 않았다. 개인별로 5개의 노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영어실력, 음악취미, 음악취향, 암기선 호도, 일반적인 학습동기 등이 각각의 참여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사료된다.

2. 수업자료

본 연구에서는 노래 중에 팝송을 선택하였다. Murphey(1990)의 팝송담 화 분석 결과가 연구의 목적에 맞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반복적이고 대화체이며 감정적이고 속도가 느린 것 등등이 노래를 활용한 언어학습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5개의 팝송을 선택하였는데 소위 팝송 명곡이라는 모음집에서 무작위로 추출하였고 제목들은 다음과 같다.

- 1) Almaz by Randy Crawford (04:08)
- 2) Always on my mind by Willie Nelson (03:32)
- 3) Am I losing you by Jim Reeves (02:36)
- 4) Am I that easy to forget by Engelbert Humperdinck (03:08)
- 5) Angel by Sarah McLachlan (04:26)

노래의 주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Almaz

에리트레아(Eritrea)에서 피난을 온 흑인부부가 어느 날 Randy Crawford (가수이름)를 집으로 초대해서 남편이 Randy에게 아내에 대한 노래를 하나 작곡해 달라고 부탁을 한다. Randy는 부부에게서 완전한 사랑의 느낌을 받아서 노래를 완성하였다. 아쉬운 일은 완성된 노래를 그 부부에게 들려주려고 했을 때 그들은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 버렸다.

2) Always on my mind

이 노래는 후회를 표현하고 있다. 여자 친구에게 그 동안 좋아하는 감정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였고, 여자 친구는 그를 떠나겠다고 말을 하자 자신이

크게 잘못했음을 인정하는 노래이다.

3) Am I losing you

자신의 여자 친구가 그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떠나려고 한다고 생각해서 홀로 자성의 시간을 가지며 이 문제에 대해서 홀로 독백을 하고 있는 노래이다.

4) Am I that easy to forget?

여자 친구가 다른 남자를 좋아하게 되어 그를 떠나게 되었지만, 아직도 그 여자를 좋아하고 있고 그녀에 대한 기억에 사로잡혀 있다. 고통을 잊기 위해 다른 여자를 사귀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떠난 여자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서 새로운 여자들을 원하지 않게 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애정을 몰라주고 떠난 여자에 대한 섭섭함을 토로하는 노래이다.

5) Angel

Sarah McLachlan(가수)가 the Smashing Pumkins라는 록 그룹의 키보드 담당인 Jonathan Melvoin의 삶에 관한 것이라고 하였다. 마약을 과용해서 1996년에 죽은 사람인데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마약으로 연명하던 그 사람을 위로해주는 노래이다.

3. 절차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7명을 상대로 각 팝송 당 한 차시의 수업을 하여 총 5회의 사례연구를 시행하였다. 매 차시에 팝송을 듣게 하고 해석을 해주었다.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교수자의 일방적인 설명이 아닌 참여자들과 함께 토론하며 해석하도록 하였다. 수업이 끝난 후에는 각자 알아서 노래를 익혀 오도록 시켰다. 다음 시간에 익힌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고, 각 참여자들과 인터뷰를 시행하였으며 각자 보고서를 쓰도록 하였다. 보고서에는 개인적인 의견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게 하였다.¹⁶⁾

- 1) 듣고 있는 멜로디를 좋아하는가? (10점 척도로 표시를 하기)

16) 노래와 성인의 영어 학습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인터뷰 문항은 연구자가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게 작성한 것이다.

- 2) 듣고 있는 멜로디를 낯노래로 따라 부르게 될 때까지 몇 번 노래를 들었는가?
- 3) 듣고 있는 노래의 가사가 암기 될 때 까지 몇 번을 암기하였는가?¹⁷⁾
- 4) 노래 완성도¹⁸⁾ (백분율)
- 5) 배운 언어표현은 어느 정도 되는가? (보고서로 배운 표현들을 제출하기)
- 6) 노래 사용의 만족도¹⁹⁾ (보고서 제출하기)
- 7) 노래 사용의 장점과 단점 (보고서 제출하기)

첫째, 학습자가 멜로디를 좋아하는 정도, 둘째, 멜로디를 익히기 위하여 소비한 시간 또는 노래 반복 정도, 셋째, 가사를 암기하기 위하여 노래를 반복한 정도, 넷째, 가사와 멜로디의 체득의 정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래에서 배운 언어표현의 개수를 확인하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학습자가 멜로디를 좋아하는 정도란 학습자가 선호하는 멜로디를 선택하였을 경우 언어학습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를 말한다. 만약 학습자가 싫어하는 멜로디라면 이 노래는 영어 학습에 사용하기 부적절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멜로디를 익히기 위하여 몇 번 정도 노래를 들었어야 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지나치게 많이 들어야 한다면 영어 학습에 사용하기는 불편할 것이다. 세 번째의 가사암기를 위한 반복 정도는 대단히 중요하다. 좋아하는 멜로디와 그렇지 못한 멜로디 사이에 가사암기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사와 멜로디를 어느 정도까지 학습을 소화하고 완성했는지를 판단해 보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배운 언어표현의 개수이다. 노래 하나를 배웠는데 알게 된 언어량이 상대적으로 너무 적으면 과연 적절한 학습활동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학습자들이 바라보는 것은 어떤지 등을 살필 가치가 있을 것이다. 평가를 위하여 보고서 내용을 정리하여, 수치화 할 수 있는 1번에서 5번까지의 문항은 그대로 수치로 제시하고, 6번과 7번의 문항은 보고서 내용을 정리하여 간단하게 소견으로 제시하였다.

17) 멜로디가 입에 붙고 나서부터 가사가 암기될 때까지 반복한 횟수

18) 멜로디와 가사가 외워진 정도

19) 노래 암기에 소비한 시간을 고려할 때에 배운 언어표현에 대한 만족도

IV. 연구결과

평가 기준 7가지를 간단하게 아래 표처럼 5가지 수치와 6번과 7번을 정리한 소견으로 정리하여 참여자마다 표를 작성하였다. 멜로디 1은 멜로디를 좋아하는 정도를 10점 척도로, 멜로디 2는 멜로디를 익히기 위해 노래를 들은 횟수, 가사는 암기하기 위해 반복한 횟수, 노래 완성도는 얼마나 노래와 가사를 익혔는지의 판단 정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언어표현은 배워서 익힌 표현의 숫자이고, 소견에서 만족도와 노래 사용의 장점과 단점을 제시하였다.²⁰⁾

1. A(상)의 결과 및 분석

〈표 2〉 참여자 A 결과

	Almaz	Always	Losing	Forget	Angel
멜로디 1(10점)	3점	8점	8점	7점	10점
멜로디 2(횟수)	30번정도	6번	5-6번	10-15번	50번정도
가사(횟수)	40번정도	10-15번	15-20번	30번 이상	50번정도
노래 완성도(%)	100%	100%	100%	100%	60%
언어표현(갯수)	1개	1개	1개	0개	2개
소견	<p>‘Almaz’는 해석 안하고 외워서 고생을 했다. 암기를 하고 싶은 표현이 없었다. ’Angel’은 인상 깊은 표현이 있어서 좋았다. 전체적으로 암기는 힘들었다. 다음 스튜디오까지 노래를 소화하는 게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 노래를 즐겁게 불러야 하는데 억지로 부르게 되어 오히려 노래공부가 스트레스로 다가온다. 평소보다 영어학습 시간이 늘어났다.</p>				

20) 사용된 5곡 중에서 ‘Always on my mind’는 ‘Always’, ‘Am I losing you’는 ‘losing’, 그리고 ‘Am I that easy to forget’에서는 ‘Forget’으로 간단하게 표기하였다.

A는 영어실력이 제일 좋은 학생이다. 노래 완성도를 보면 5곡 중 4곡에서 노래를 완전하게 소화시켰다. 또한 암기하고 싶은 표현의 개수가 적은 것을 보면 노래 가사에 나와 있는 언어표현 정도는 상당히 알고 있다는 증거다.

위 표에 나타난 A의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Angel’이 제일 좋아하는 멜로디라고 했는데 연습량이 제일 많았다. 그러면서도 노래 완성도가 제일 떨어졌다. 좋아하는 멜로디여서 자신도 모르게 멜로디를 자주 듣게 되었지만 노래 가사가 해석하기 어려웠던 것 같다. 이 수치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멜로디와 가사의 암기는 별도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마치 듣기와 말하기는 별도의 훈련이 필요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둘째, ‘Almaz’는 제일 싫어하는 멜로디이다. 멜로디와 가사의 암기에 시간을 많이 사용하였다. ‘Angel’과 다른 점은 노래를 완전하게 소화를 시킨 것이다. 이 수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가사 암기는 멜로디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해 낼 수 있는 것이다. 셋째, 나머지 세 곡은 A에게 멜로디가 친숙한 것이었던 것 같다. 별로 듣지 않고도 멜로디를 익힌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러나 가사 암기에서는 훨씬 많은 노력을 하였다. 여기서도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노래가 가사 암기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별도의 노력을 해야 가사 암기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A는 소견에서 노래는 즐겁게 불러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많은 노래를 짧은 시간에 암기시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즐거운 학습은 안 된다고 했다. A의 소견에서 보면, 노래 선곡에 있어서 가사가 해석하기 어려운 것은 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멜로디를 즐겁게 부를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일주일에 3곡 정도의 학습은 즐거운 학습을 방해하였다고 하였다.

2. B(중상)의 결과 및 분석

〈표 3〉 참여자 B 결과

	Almaz	Always	Losing	Forget	Angel
멜로디 1(10점)	7점	7점	7점	8점	8점
멜로디 2(횟수)	30번 이상	15번	35번	21번	39번
가사(횟수)	15번 이상	5번	3시간 ^{30분} ¹⁾	12번	21번
노래 완성도(%)	80%	70%	100%	75%	75%
언어표현(갯수)	2개	3개	2개	4개	3개
소견	“Am I losing you?”는 반복되는 표현이 많아서 외우기가 수월했다. “Always on my mind”에서는 ‘as-as’구문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반복이 되어서 좋았다. 평소에 쓰지 못하던 표현이다. “Angel”은 외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표현이 멋이 있어서 자꾸 부르게 됨. 그러나 표현이 너무 시적이라 외우기는 힘들었다. 전체적으로 소비한 시간에 비해 배운 언어표현의 수가 적었다.				

B는 A 다음으로 영어실력이 좋다. 배운 언어표현들이 A보다는 많은 편이다. 그런데 노래 완성도에서 5곡 중 한 곡도 노래를 완성시키지 못하였다. 멜로디를 익히지 못한 것이 아니고 가사를 완전하게 암기를 하지 못하였다. “Am I losing you”는 완성시켰지만 반복되는 표현이 많아서 암기가 수월했다고 한다.

B의 특징들을 보면, 첫째, B는 5곡 모두가 멜로디의 측면에서 마음에 든다고 본 것 같다. 그러나 멜로디를 입에 붙이는데 꽤 많은 노력을 했다. 평균 28번²⁾의 반복 연습을 한 것을 보면 노력이 많았던 것을 알 수가 있다. 노래 학습에서 멜로디를 익히는 데 사용되는 시간이 많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둘째, B는 A와는 다르게 가사 암기의 횟수가 멜로디 암기 횟수보다

21) 가사를 암기한 횟수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대신에 사용한 시간은 기억하고 있다고 해서 횟수 대신 시간을 적었다.

22) $(30+15+35+21+39) \div 5 = 28$

적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노래 완성도가 안 된 것은 확실하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멜로디에는 시간을 제법 사용했으면서도 가사 암기에는 시간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은 점이다. 노래 학습은 가사 보다도 멜로디가 먼저 임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가사 암기가 의외로 학생들에게 부담스러운 활동임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다.

B는 소비한 시간에 비해 배운 표현이 적다는 지적을 하였다. 노래를 통해서 언어학습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망을 토로하였다. 가사암기가 부담스러운 활동이라 노래 선곡에서 가사의 언어적 난이도를 고려해 주어야 할 것 같다. 또한 가사 암기를 위한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할 것이다.

3. C(중상)의 결과 및 분석

〈표 4〉 참여자 C 결과

	Almaz	Always	Losing	Forget	Angel
멜로디 1(10점)	7점	6점	4점	8점	8점
멜로디 2(횟수)	15번 정도	20번정도	25번정도	15-20번	15번 이상
가사(횟수)	10번 정도	6번	6번	6-7번	20번 이상
노래 완성도(%)	80%	90%	60%	50%	미완성
언어표현(갯수)	4개	2개	2개	2개	8개
소견	드라마로 영어공부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게 실용적이기는 하지만 장기기억에서는 노래가 좋은 듯 하다. 좋았던 점은 노래 내용을 기억해 내면서 암기하고 싶었던 언어항목들을 떠올리는 속도가 드라마보다 상대적으로 빨랐다. 나빴던 점은 사운드가 마음에 들지 않는 노래를 억지로 들어야 했던 점이다.				

C는 영어실력이 B와 비슷하지만, B에 비해서 배운 언어표현의 수는 더 많다. B는 남학생이고 C는 여학생이라서 그런지 관심 있는 표현이 더 많았다. 그러나 노래 완성도면에서는 C가 B보다 못한 것으로 보이고, ‘Angel’을 외우는 데에 실패를 했다.

위 표에 나타난 C의 특징들은 보면, 첫째, ‘Angel’에서 C는 멜로디가 좋다고 했고 가사의 암기에도 다른 노래에 비해 노력을 많이 했는데 노래를 완성시키지 못하였다. 이것을 보면 가사 암기에 어려움을 겪은 것 같다. 배운 언어표현이 8개나 된다고 했는데 가사 암기는 힘이 들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노래 선곡에서 가사의 난이도를 고려해야 할 것 같다. 둘째, ‘Am I losing you’에서는 멜로디를 익히느라 제일 많은 노력을 했다. 싫은 노래를 듣게 돼서 일어난 현상인 것 같다. 노래 선곡이 중요한 변수로 사료된다. 셋째, ‘Almaz’와 ‘Always on your mind’에서 노래 완성도가 비교적 높았다. 특별히 멜로디와 가사 암기에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지 않은데 결과는 나쁘지 않았다. C가 잘 알고 있던 노래라는 것을 보고서를 통해 알게 되었고, 이것을 보면 학생들에게 잘 알려진 노래를 선정하는 것이 언어학습효과를 볼 수 있는 것 같다.

C는 소견에서 노래가 장기기억에 좋은 것 같다고 했다. 연습하는 과정에서 어떤 표현들은 쉽게 머리에 떠올랐던 것 같다. 그리고 싫은 노래는 부르기가 싫다고 했다. 정리하면, C도 노래 완성도에서 충분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가사 암기가 상당히 힘든 과정임을 알 수 있었고, 따라서 암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C는 노래가 장기기억을 하는데 좋은 활동 같다고 했다.

4. D(중상)의 결과 및 분석

〈표 5〉 참여자 D 결과

	Almaz	Always	Losing	Forget	Angel
멜로디 1(10점)	7점	5점	5점	8점	10점
멜로디 2(횟수)	8번 이상	10번 정도	10번 정도	5번	6번
가사(횟수)	20번	12번	15-20번	20번 정도	16번
노래 완성도(%)	85%	70%	70%	80%	100%
언어표현(갯수)	5개	6개	4개	4개	17개

소견	<p>노래를 외우는 데에 소요시간은 매일 두시간정도 사용. 총 14시간 투자.</p> <p>사랑노래 비슷한 단어반복, 문장 짧고 단순. 실생활과 연관성 적다. 미드로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데 미드가 더 좋다.</p> <p>후렴구가 기억에 남는데 후렴구가 표현이 좋지 않으면 배운 것이 없는 것 같다.</p> <p>“Angel”은 멜로디는 좋은데 가사가 어렵다. 멜로디는 생각이 잘 나는데 가사는 생각이 잘 안 난다. 멜로디 가사 모두 부담스럽다. 익숙하고 많이 들어본 노래로 한다면 좋을 듯하다.</p> <p>표현을 암기하는 데는 좋을 듯하다.</p>
----	---

D도 B, C와 비슷한 영어실력을 지녔는데, 언어표현의 수에서 B와 C보다 개수가 많았고 특히 ‘Angel’에서는 무려 17개나 되었다. 특별히 ‘Angel’이 D에게는 선호도가 높은 노래였다고 판단된다. 위 표에 나타난 D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Angel’은 5곡 중에서 제일 어려운 노래였는데도 D는 노래완성도 100%를 이루었고 배운 언어표현도 많았다. 이것을 보면 노래의 선곡을 잘하면 학생들에게 즐거움도 주고 언어학습에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같다. 둘째, D는 7명의 학생 중에서 언어표현의 수를 제일 많이 적었다. 노래를 활용한 언어 학습이 잘 맞는 학생이다. 이것을 보면 노래 선곡을 잘하고 특히 가사가 좋은 곡을 고르면 학생들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다. 셋째, 노래 완성도에서 ‘Angel’을 제외한 다른 곡들에서 80% 정도만 한 것을 보면 가사 암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짐작케 해 준다.

D는 소견에서 의외로 노래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상대적으로 배우는 것은 적다고 했다. 그런데도, 정형화 배열을 암기하는 데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이 결과에서 보면, 가사가 좋은 곡의 선정이 중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래에 시간이 많이 사용되므로 얻는 것이 많아야 노래로 공부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가사 암기할 시간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5. E(중중)의 결과 및 분석

〈표 6〉 참여자 E 결과

	Almaz	Always	Losing	Forget	Angel
멜로디 1(10점)	6.8점	9점 ²³⁾	6점	6점	6점
멜로디 2(횟수)	7번	5번	5-6번 정도	10번 정도	포기
가사(횟수)	24번	15번	18번	25번 정도	포기
노래 완성도(%)	87%	95%	80%	73%	포기
언어표현(갯수)	8개	10개	4개	3개	포기
소견	<p>“Almaz”는 해석과 뒷배경을 알고 나서 외우니까 암기하기 편했다. “always on my mind”는 가사를 보니까 멜로디가 좋아진 곡. 멜로디와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가사 전체를 외우고 싶다. “Am I losing you”는 옛날 풍의 멜로디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Am I that easy to forget”은 한 문장을 암기하는 것은 쉬워졌는데 가사 전체를 외우는 것은 흐름이 안 잡혀 계속 어렵다.</p>				

E는 B, C, 그리고 D 보다는 영어 실력이 한 단계 낮다. ‘Angel’을 포기한 것을 보면 E의 언어능력에는 소화시키기 부담스러웠던 노래였던 것 같다. E에 나타난 특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Always on my mind’는 E가 좋아하는 곡이다. 노래의 완성도가 95%이다. E의 다른 노래들과 비교를 하면 제법 높은 완성을 하였다. E는 가사가 좋아서 멜로디가 좋아졌다고 평한 것을 보면 노래를 이용한 언어학습에서 역시 좋은 가사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E는 멜로디보다 가사의 암기에 집중을 하였는데, 표에 나타난 횟수를 보면 드러난다. 그리고 노래 완성도가 높은 원인도 가사에 집중했기 때문으로 파악할 수 있다. 관찰결과, E는 노래 부르기보다 가사 암기, 즉 언어학습에 열중한 것으로 보인다. ‘Angel’을 포기한 것도 가사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학생들을 위해서도 가사의 선별은 중요해 보인다.

셋째, E는 5곡 중에서 4곡은 별로 좋아하는 멜로디가 아니라고 했다. 이에 반하여 노래 완성은 비교적 잘한 편으로 볼 수 있다. 7명의 학생 중에서 유

23) 그러나 가사의 뜻을 알고 나서 멜로디가 좋아졌다고 한다.

일하게 멜로디보다 가사를 선호한 학생이다. E의 소견을 보면 대부분 가사에 관한 언급이다. 가사 내용을 중심으로 노래 연습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사의 담화에 대한 내용 이해를 시켜주는 것이 노래를 통한 언어학습에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6. F(중중)의 결과 및 분석

〈표 7〉 참여자 F 결과

	Almaz	Always	Losing	Forget	Angel
멜로디 1(10점)	7점	7점	8점	8점	9점
멜로디 2(횟수)	4번	5번	5-6번	7번	8번
가사(횟수)	11번	13번	15-20번	13번	26번
노래 완성도(%)	80%	70%	100%	80%	55%
언어표현(갯수)	2개	2개	1개	2개	2개
소견	<p>‘Always on my mind’에서 후렴구가 계속 머리에 맴도는 신기한 현상이 요즘 생겼다.</p> <p>“Angel”은 너무나 훌륭한 노래여서 어떤 가사는 편하게 외울 수 있었다. 그러나 후렴구가 적어서 전체적으로 가사 암기는 힘들었다.</p> <p>“Am I that easy to forget”은 남자의 아쉬움과 회환이 진하게 묻어나는 표현이라 공감이 가고 기억에도 많이 남았다. 멜로디의 기승전결이 다른 곡들에 비해 확실하여 마지막 후렴구를 외우는데 좋았다. 기억이 오래갈 것이다.</p>				

F는 영어실력이 E와 비슷하지만, E와 비교할 때 대조를 이루고 있다. 언어표현에서 E보다 훨씬 적었다. 반면에 멜로디에서는 E보다 친숙도가 높다고 했다. 위에 나타난 F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으로 멜로디 친숙도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 F는 노래를 좋아하는 학생임에 틀림없다. 영어실력에 비해 노래 완성도가 높은 것은 멜로디가 가사 암기에 좋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에서 원인을 볼 수 있겠다. 이런 면에서 보면 노래 선곡

시에 배우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노래들을 고를 필요가 있다. 둘째, 멜로디를 암기한 횟수가 누구보다도 적은 편이다. E는 음악적 감각이 있다고 관찰결과 판단될 수 있었고, 인터뷰시에 5곡의 멜로디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고 익숙한 곡조라고 하였다. 노래를 영어학습에 이용할 때에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곡이면서 동시에 머리에 멜로디가 들어있는 즉, 익숙하고 친숙한 곡조의 선정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언어표현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아 언어학습보다는 노래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실제 수업에서 이런 타입의 학생들이 많을 것 같다. 따라서 즐겁게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좋아하고 알고 있는 노래를 고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F의 소견에서는 멜로디가 귀에 울리는 현상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멜로디의 기승전결이라는 말을 하였다. 노래와 음악에 감각이 있는 학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결과를 보면, 언어학습에 동기가 약한 학생들 중에 노래를 좋아한다면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서 가사를 통해 언어학습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7. G(중하)의 결과 및 분석

〈표 8〉 참여자 G 결과

	Almaz	Always	Losing	Forget	Angel
멜로디 1(10점)	5점	8점	5점	8점	0점
멜로디 2(횟수)	1시간	30-40분	2시간	3시간 ²⁴⁾	실패
가사(횟수)	2-3시간	암기실패	5시간	2시간	실패
노래 완성도(%)	60%	20%	30%	100%	실패
언어표현(갯수)	0개	1개	0개	3개	실패
소견	<p>“Am I that easy to forget”은 멜로디보다 가사가 먼저 암기가 되었다.</p> <p>“Angel”에서는 노래라는 것이 좋아하지 않으면 손도 잘 안가고 귀도 안 가는 것 같다. 싫어하는 노래는 억지로 외울 수는 있지만 즐기는 것 같지가 않고 스트레스 받는 공부를 하는 것 같아 노래를 이용하는 목적과 안 맞는 것 같다.</p>				

G는 7명의 학생들 중 실력이 제일 낮은 학생이다. ‘Angel’을 익히기를 포기했고 언어표현의 개수에서도 좋아하는 표현이 거의 없었다. A(상)와 수치상으로 일견 비슷한 현상을 보이는 것이 특이하다.

G에 나타난 특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멜로디와 가사암기에 7명의 학생들 중 제일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이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된 원인은 집중이 잘 안되고 노래만 듣고 있다 보니 시간 소비가 많았다고 G는 말한다. 노래를 활용한 수업을 하고자 할 때 최소한의 영어실력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Am I that easy to forget’에서는 100%의 완성도를 보였다. F가 이 곡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영어실력이 낮아도 아는 곡을 택하면 소화시킬 수 있다. 다만 많은 학생들에게 이용할 때에는, 일일이 아는 곡들을 제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G의 소견에서는 싫은 노래로 공부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한다. 억지로 노래를 부르는 것은 노래 활용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반대를 했다. 정리하면, 학습자들이 잘 아는 곡들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은 시간대로 많이 쓰고 학습은 반대로 역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결과를 분석한 것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자 7명 모두 노래 멜로디와 가사를 암기하는 활동이 의외로 어렵다고 했다. A를 제외한 6명의 참여자들이 노래완성도에서 100%를 달성하지 못한 것을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실력에 상관없이 노래 암기는 어려운 것으로 간주되었다. 둘째, 참여자들 중 C, F, 그리고 G는 노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을 했다. 싫어하는 노래를 억지로 부르는 것은 노래로 학습하는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 E, F, 그리고 G는 노래를 부르기 전에 가사 해석과 노래가 만들어진 배경을 먼저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F와 G의 영어실력이 낮은 점을 고려해 보면 당연한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다. 넷째, 영어실력이 좋은 A와 B는 노래가사에서 배우는 표현의 수가 너무 적다고 했다.

영어실력이 좋은 A와 D는 노래의 선곡이 잘 되면 재미있는 영어 학습을

24) F는 이 노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멜로디 연습이 필요 없었다. 좋아서 불렀기 때문이고 연습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할 수가 있겠다고 했다. A, B, C, 그리고 F는 기억이 오래 가는 것 같다고 했다. 따라서 노래를 선곡할 때 학생들이 잘 알고 있는 멜로디와 해석하기 쉬운 가사를 포함하고 있는 노래를 고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교실에서의 노래 사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지는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V. 결론 및 논의

한정된 참여자들과 5곡의 팝송만으로 노래를 교실에서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타당한지를 논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7명의 참여자들의 노래에 대한 학습체험과 관찰과 인터뷰를 통해서 그들이 느끼고 있는 문제점들을 토론했다는 것은 대학생들에게 노래를 교실에서 사용하는 것의 적부를 판단하는 첫 관문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분석하면 세 가지 논의점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노래로 영어 학습을 시행하면 멜로디를 익히고 가사를 학습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즉 멜로디와 가사의 암기시간이 너무 길다고 한 것이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학생들이 잘 알고 있는 노래를 선정하는 것이다. 알고 있는 친숙한 멜로디라면 암기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노래가사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해 주고 해석을 충분히 잘 설명해 주는 것도 암기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가르치는 교사의 입장에서 노래를 바라보고 있다. 노래의 선정에 있어서도 가르치는 입장이 중심이 된다. Orlova(2003)는 회화를 위한 노래 사용법을 소개하면서 어떤 노래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가르치는 교사가 좋아하는 곡이 제일 좋다고 했다. 그러나 실험의 결과에 따르면 노래 사용의 큰 문제는 시간 소비가 너무 많다는 것이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배우는 학생들이 선택하는 노래를 이용해야 시간 과 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노래에는 사용된 어휘와 구문의 양이 적은 것이 약점이라고 참여자

들이 지적했다. 시간을 많이 소비하였는데 배운 언어가 적은 것은 오히려 손해라는 것이다. 노래에는 반복되는 표현들이 많아서 익히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이 맞지만, 이런 반복 표현들을 제외하고 실제 사용된 언어양이 많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사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노래가 좋다는 결과는 많지만, 배우는 언어양이 적다는 연구결과는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팝송을 사용하였을 경우의 장점만 나열되어 있다. Engh(2013)는 팝송을 사용하면 어휘를 증강시킬 수 있을 뿐만이 아니고 긴 발화(longer utterance)와 정형화 배열들도 배우는데 유용하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 참여자들의 반응에서는 배우는 양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참여자들과 개별적으로 별도 인터뷰를 하였다. 참여자 전원이 미국 드라마(미드)로 영어 학습을 한 경험이 있으며 미드를 좋아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학습경험을 비교하여 질문하였다. 드라마에서 실용적인 표현을 20개를 배웠다고 하고 노래에서 실용적인 표현을 3개만 배웠다고 가정했을 때 시간이 흐른 후 어느 쪽의 표현들이 기억에 남겠는지를 물어보았다. 참여자들은 모두 노래에서 배운 표현들이 기억에는 오래 남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렇다면 결국 미드를 이용하는 것과 노래를 이용하는 것 중에 어느 쪽을 택하겠냐고 물었더니 모두 장기 기억으로는 노래가 좋을 것 같지만, 미드로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다고 답변하였다. 장기기억을 고려했을 때 노래의 사용이 나쁘지 않다는 결론이지만, 학습의 재미는 영상자료에 비해 덜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 방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노래는 사랑을 주제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감정과 사랑에 호소하는 내용이라 언어 표현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문제가 언급되었다. 언어 표현이 다양성과 실제성 면에서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언어 표현이 상황과 일대일로 대응되는 것이 아니고, 체득된 언어 표현은 작은 단위로 나뉘어져 다른 표현과 상황에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에 관련된 표현을 익혔다고 다른 상황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Bolander(1989)와 Lee(2014)는 표현을 암기하면 자동적으로 표현을 작은 단위(chunk)로 나누어 머리에 입력된다고 하였다. 이런 각각의 단위를 학습자들이 나중에 표현하고 싶은 의미에 사용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표현

을 암기하는 것은, 표현 그대로를 비슷한 상황에 사용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표현을 작은 단위로 바꾸어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습득 과정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다.

멜로디의 효과, 노래 가사가 지닌 언어적인 특징, 감정이 받침이 된 기억 능력 증강 등 2장에서 언급된 노래의 특징과 장점들은 이론적 근거가 충분하다. 그러나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기존의 연구는 실제 학습 현장에 적용했을 때의 문제점들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암기에 대한 부담, 적은 언어량, 편중된 언어표현들, 과도한 학습시간 등이 노래 사용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비록 본 연구가 소규모의 사례연구라는 한계성이 있으나 후행연구를 통해서 교실에서의 노래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EFL에서의 영어 수업이 학생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학습교재와 사용방법을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시기적절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다.

❖ 참고 문헌

- ABBOTT, M., "Using Music to Promote L2 Learning among Adult Learners", *TESOL Journal* 11, pp. 10-17, 2002.
- BALCH, W. R., BOWMAN, K., & MOHLER, L. A., "Music-dependent Memory in Immediate and Delayed Word Recall", *Memory & Cognition* 20.1 (1992): 21-28.
- BILBROUGH, N., *Memory Activities for Language Learn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 BOGOCH, S., *The Biochemistry of Memory, with an Inquiry into the Function of the Brain Mucoids*, Oxford University Press, 1968.
- BOLANDER, M., "Prefabs, Patterns and Rules in Interaction? Formulaic Speech in Adult Learners' L2 Swedish," in K. Hyltenstam & L. K. Obler (eds.), *Bilingualism across the Lifespan*,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 Press, 1989, 73-86.
- BRADY, S. A., "The Role of Working Memory in Reading Disability," in S. A. Brady & D. P. Shankweiler (eds.), *Phonological processes in literacy: A tribute to Isabelle Y. Liberman*, Routledge, 1991, 129-52.
- BROWN, H. D.,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5th ed.), White Plains, NY: Pearson Education, 2007.
- CHAN, A. S., HO, Y., & CHEUNG, M., "Music Training Improves Verbal Memory", *Nature* 396(6707), 128, 1998.
- CHOMSKY, N.,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Cambridge, MA: MIT Press, 1965.
- COE, N., "What Use are Songs in FL Teaching?,"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in Language Teaching* 10.4 (1972): 357-60.
- COYLE, Y., & GRACIA, R. G., "Using Songs to Enhance L2 Vocabulary Acquisition in Preschool Children", *ELT Journal* 68.3 (2014): 276-85.
- CRYSTAL, D., "Prosodic Development," in P. Fletcher & M. Garman (eds.), *Language acquisition*,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33 - 48.
- DEL CAMPO, P., *La Música Como Proceso Humano*. Salamaca, Spain: Amaru Ediciones, 1997.
- ELLIS, N. C., "Sequencing in SLA: Phonological Memory, Chunking and Points of Order",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18 (1996): 91-126.
- ENGH, D., "Why Use Music in English Language Learning? A Survey of the Literature", *English Language Teaching* 6.2 (2013): 113-27.
- ERMAN, B., & WARREN, B., "The Idiom Principle and the Open-choice Principle", *Text* 20 (2000): 29-62.
- FLOHR, J. W., MILLER, D. C., & PERSELLIN, D., "Children's Electrophysiological Responses to Music." Paper presented at the 22nd International Society for Music Education World Conference, Amsterdam, 1996, July.
- FONSECA-MORA, C., "Music, Language and Mind: Foreign Language Acquisition through Singing." Paper presented at I Congreso Internacional de Estudios Ingleses, University of Almería, Spain, 1997, October.
- _____, "Foreign Language Acquisition and Melody Singing", *ELT Journal* 54.2 (2000): 146-52.
- FORSTER, E., "The Value of Songs and Chants for Young Learners", *Encuentro*

- 16 (2006): 63-68.
- FOSTER, P., "Rules and Routines: A Consideration of Their Role in the Task-based Language Production of Native and Non-native Speakers," in M. Bygate, P. Skehan, & M. Swain (eds.), *Researching pedagogic tasks: Second language learning, teaching, and testing*, Harlow, UK: Longman, 2001, 75-93.
- GATBONTON, E., & SEGALOWITZ, N., "Creative Automatization: Principles for Promoting Fluency within a Communicative Framework", *TESOL Quarterly* 22 (1988): 473-92.
- GRIFFEE, D., "Editorial Introduction", *The Language Teacher* XIII. 5 (1989): 3.
- GROUT, D., *A History of Western Music*, New York: Norton, 1980.
- HANNAFORD, C., *Smart Moves*, Virginia: Great Ocean, 1995.
- HAZEL-OBAROW, S., "*The Impact of Music on the Vocabulary Acquisition of Kindergarten and First-grade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Widener University, 2004.
- HIRT-MANNHEIMER, J. "Music Big for Little Folks", *Teaching Music* 3.2 (1995): 38-39.
- HO, Y., CHEUNG, M., & CHAN, A. S., "Music Training Improves Verbal but not Visual Memory: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Explorations in Children", *Neuropsychology* 17.3 (2003): 439-450.
- HOWARTH, P., "The Phraseology of Learners' Academic Writing," in A. Cowie (ed.), *Phraseology: Theory, analysis and applica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161-186.
- KRASHEN, S. D., "The Din in the Head, Input, and the Language Acquisition Device", *Foreign Language Annals* 16.1 (1983): 41-44.
- _____, *The Input Hypothesis: Issues and Implications*, London: Longman, 1985.
- _____, "We Acquire Vocabulary and Spelling by Reading: Additional Evidence for the Input Hypothesis", *Modern Language Journal* 73.4 (1989): 440-64.
- LAKE, R., "Enhancing Acquisition through Music", *The Journal of the Imagination in Language Learning* 7 (2003): 97-106.
- LEE, Y. J., "*Working Hypothesis in Second Language Development in Natural Settings: Twenty One Year Old Adult's Second Language Development in the Game Play of World of Warcraf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enn State University. State College, PA, 2014.

- LI, X., & BRAND, M., "Effectiveness of Music on Vocabulary Acquisition, Language Usage, and Meaning for Mainland Chinese ESL Learners", *Contributions to Music Education* 36.1 (2009): 73-84.
- MAYESKY, M., *Creative Activities for Children in the Early Primary Grades*, Albany, NY: Delmar, 1986.
- MEDINA, S. L., "The Effects of Music upon Second Language Vocabulary Acquisition." Paper presented at the TESOL conference. San Francisco, CA. ED352834, 1990.
- MURPHEY, T., "Special Issue on Songs and Music: The Top Forty for Teachers", *The language teacher* XIII (1989): 3-6.
- _____, *Music and Song in Language Learning: An Analysis of Pop Song Lyrics and the Use of Music and Song in Teaching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 Bern, Switzerland: Peter Lang Verlag, 1990.
- _____, *Music and So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2a.
- _____, "The Discourse of Pop Songs", *TESOL Quarterly* 26.4 (1992b): 770-74.
- MURPHEY, T., & ALBER, J. L., "A Pop Song Register: The Motherese of Adolescents as Affective Foreigner Talk", *TESOL Quarterly* 19.4 (1985): 793-95.
- ORLOVA, N. F., "Helping Prospective EFL Teachers Learn How to Use Songs in Teaching Conversation Classes", *The Internet TESL Journal* IX.3 (2003): <http://iteslj.org/Techniques/Orlova-Songs.html>
- OZICK, C., *The Din in the Head*, Essays,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2006.
- PIÑERO, E. & FEU, M. J., "El Mundo Sonoro Infantil y Adquisición del Lenguaje [Infant sound world and language acquisition]", *Revista Música, Arte y Proceso* 2 (1996): 38-48.
- SALCEDO, C., "The Effects of Songs in the Foreign Language Classroom on Text Recall, Delayed Text Recall and Involuntary Mental Rehearsal." Paper presented at 2010 IABR (International Applied Business Research) & ITLC (International College Teaching and Learning) Conference Proceedings, pp. 1-12, 2010.
- SCHUNK, H., "The Effect of Singing Paired with Signing on Receptive Vocabulary Skills of Elementary ESL Students", *Journal of Music Therapy* XXXVI.2 (1999): 110-124.
- SMITH, C., "How can Parents Model Good Listening Skills?", ACCESS ERIC.

(ERIC Document No. RI890120), ERIC Clearinghouse on Reading and Communication Skills, 1992.

STONE, B., & BRADY, S. A., "Evidence for Phonological Processing Deficits in Less-skilled Readers", *Annals of Dyslexia* 45 (1995): 51-78.

SWANSON, C., "*Who's Listening in the Classroom? A Research Paradigm.*" Paper presented at the 16th Annual Convention of the International Listening Association, Sacramento, CA, 1996, March.

TOMATIS, Alfred A., *The Conscious Ear: My Life of Transformation through Listening*, Paris: Station Hill Press, 1991.

❖ ABSTRACT

A Study on the Feasibility and Effectiveness Using Songs: A Case Study of EFL College Students

Ryu, Do Hyung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the effectiveness of songs in the acquisition of formulaic sequences in the college EFL classroom. The existing research mentions the use of songs in terms of the power of their melodies (Fonseca-Mora, 2000), linguistic features in song lyrics (Abbott, 2002), and the emotional basis of memory (LI & Brand, 2009). Learners' opinions about the use of songs has been ignored, however. In this paper, seven subjects with English ability ranging from advanced (one) intermediate-high (three), intermediate-middle (two), and intermediate-low (one) studied five different pop songs. The results showed that they did not agree with the existing research findings. Rather, they were negative about using songs in the classroom. Their complaints were the burden of using too many hours to memorize lyrics, few language expressions to learn, and too much emphasis on expressions about love and feelings. Students at all levels expressed similar negativity about the use of songs. When their complaints were discussed during interviews, however, their attitude changed from negative to positive. The case study in this paper was on a small-scale but it is suggested that through further research the use of songs could be activated in the EFL classroom. Considering college language learners disregard most existing EFL materials, it appears to be worthwhile to continue further with this kind of research.

Key Words

노래를 이용한 영어교육, 기억과 노래, 정형화 배열, 노래와 언어습득, 영어교육자료
English education with songs, memory and songs, formulaic sequences, songs
and language acquisition, English education materials

384 비교문화연구 제38집 (2015. 3.)

논문접수일: 2015년 02월 10일

심사완료일: 2015년 03월 10일

게재확정일: 2015년 03월 16일